

대행 스님

항상 겸손하고 남을 깔보지 말며 벌레 하나도 자기로 알라

우리가 역대에 내려오면서 사람 되기까지 얼마만큼 억겁을 거쳐 오면서 이렇게 사람이 됐겠습니까? 지금도 내가 저기 오다가 극장이나 이렇게 간판 붙인 걸 봤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죠? 지금 애들이나 어른이나 극치적인 영화를 좋아합니다. 그건 왜? 사람을 그냥 막 피를 빨아 먹고, 또 그 뭐야, 신나게 하는 거. 이런 거를 좋아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우리가 저 억겁으로부터 거쳐 오면서 우리가 그렇게 해 온 습이 아직까지도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입니다. 그걸 좋아하거든.

그런 극치적인 영화를 좋아하고 극치적인 그 산란을 좋아하는 거는 반드시 그러한 잠재해 있던 것이 그걸 보는 순간 그런 게 좋단 말야, 극치적인 거. 평면으로 이렇게 무미하게 돌아가는 것은 뜻이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습이 아직까지도 꼭지가 덜 떨어져서, 꽁댕이는 없어졌는데 꼭지가 덜 떨어졌죠. 그래서 그런 걸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 우리 이 마음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둘로 보지 말라. 안으로 굴리지 않는다면 보살이 아니니라. 깨쳤다 하더라도 안으로 굴리지 않고 바깥으로 도는 자, 이 법문을 제대로 해 주지 못하느니라. 이 법문을 제대로 전달을 못 함으로써 공덕은 하나도 없고 보살이 아니니라. 이 몸으로, 모습으로, 이름으로 부처님의 마음을 알 길이 없고, 이 모습으로, 이름으로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없고, 자식의 마음을 알 수 없고, 부처의 마음을 알 수 없고, 일체 만물의 유생 무생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서 굴릴 수가 없느니라. 제도할 수도 없느니라.

제도했다고 하느냐? 제도를 했다고 하지 말라. 본래 둘이 아니기에 제도한 것도 없고 안 한 것도 없느니라. 그대로 마음으로 굴리면서 항상 따뜻한 마음을 내 주면 되느니라. 따뜻하게 둘로 보지 않는 마음, 남이 아프면 내 아픔으로 생각하고 마음을 내 준다면 그것이 바로 네 아픔과 둘이 아니니라. 이것이 바로 보살의 마음이요, 이것이 바로 부처의 마음이요, 진짜 들어가서는 인간의 마음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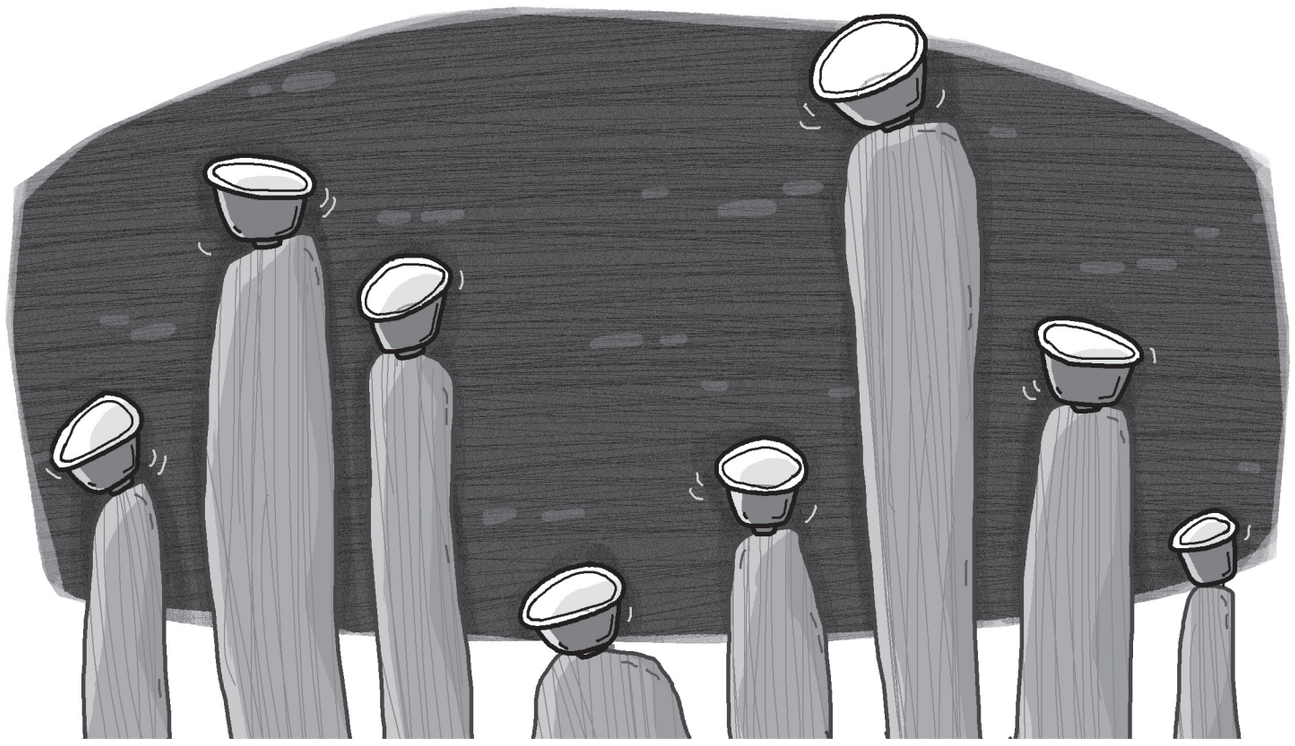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인간이라는 것도 이름이요, 부처라는 것도 이름이니라. 여래라는 것도 이름이요, 다 이름이니 그 이름을 가지고 소중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 이름 속에 소중한 것이 있느니라. 그 모습 속의 소중한 것을 발견하라. 발견하기 위해서는 안으로 보림을 하면서, 항상 그 안으로 굴리면서 거죽으로 나타내지 말고 경솔하지 말고 또한 항상 겸손하게, 남을 깔보지 말 것이며 벌레 하나를 본다 할지라도 너로 알아라. 저 꽃이파리 저 나무 이파리, 무정물이나 하다못해 돌 하나를 본다 하더라도 그것이 남이 아니니라.

우리가 과학적으로 생각할 때도 지, 수, 화, 풍으로 뭉쳐서 바람과 흙과 물 이 모든 것이 한데 합쳐져서 큰 성을 이루어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지구라는 집이 됐고 대천세계라는 집이 됐고 중천세계도 있고 하천세계도 있고, 이렇게 돼서 우리가 지금 조화를 이루고 돌아가는 것이 전체가 아닙니까? 당장 우리 살아나가는 데에 물이 없어도 아니 되고 불이 없어도 아니 되고 흙이 없어도 아니 되고 바람이 없어도 아니 됩니다. 그럼으로써 사대가 공해서 태양이라는 그 자체의 따뜻한 그런, 보람 있는 밝음이 생긴 겁니다.

우리의 마음도 역시 그러한 밝음이, 우리를 전부 이끌어 줄 수 있는 그 밝음이 되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한마음 그 한 점의 근본이 태양의 근본도 될 것이요, 천지의 근본도 될 것이요, 우주의 근본도 되니 그 어디에도, 이 오온에 스스로 밝아서 돌고 스스로 밝아서 걸릴 게 없는데 어찌 이 오온에 칠보가 가득 차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 아니 닿는 데가 없거늘 사람들은 모습과 이름을 칭하고 자기의 삶을 거기에서 취하려고 하니 그것이 가는 곳마다 걸려. 그 걸리는 것을 언제 어느 때에 벗어날 길이 없다고 해서 부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도…. 부처님이라는 이름도 이름인 것입니다. 그것은 똑바른 참사람, 참사람이라는 것이 부처님이라는 얘깁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사람 되려고 욕심을 부리지도 말고 또는 참사람 아니 된다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오직 자기가 본래 가지고 있는 그 한 점의 공한 자리에, 공한 데서 나오는 거 공한 데다 다시 놓는다면, 다시 맡겨 놓고 믿음을 진실하게 갖는다면, 그리고 물러서지 않는다면 바로 거기에서 자기의 마음을 스스로 알게 되고, 그때는 부처님의 마음도 모든 중생들의 마음도 모든 걸 다 알게 되며 남한테 해하지 않는 마음, 둘로 보지 않는 마음이 됩니다.

이 자비라는 것은, 헐고 깨끗하고 더럽고 이런 것이 몰락 없는, 높고 낮음도 없고 부처 중생도 없는 그러한 한 점의 내놓을 게 없는 이런 빈 그릇 자체가, 바로 우리가 찰나찰나 나투면서 밝게 비추어 주는 손 없는 손이요, 발 없는 발이요, 길 없는 길이라. 평이마요, 평손이요, 평발이요, 이것이 바로 한 손 들어서 천지를 삿갓으로 쓰고 한 손 들어 해와 달을 꿰어 굴리면서, 한 발 들어 이 산 저 산 푸른 산 한 발 디디니, 목 마르면 물 마시고 대장부 살림살이 이만하면 족하다는 말이 얼마나 참사람의 마음이겠습니까?

참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물 한 모금 떠 마실 때, 여러분이 목마를 때 '물 먹겠다' 하고 계산하고 먹습니까? 무심으로 그냥 떠 먹습니다. 그게 바로 참사람의 활용이야. 여러분이 금을 가졌다면 그걸 얼른 내놓지 않겠지만 걸레를 빨아 쥐었다면 빨리 내던질 겁니다. 빨리 빨아서 얼른 짜서 놓습니다. 금을 가졌더라도 빨리 짜서 걸레 놓듯 하십시오, 신발 벗어 놓고 올라가듯. 아시겠습니까? 금을 가졌다고 해서 이걸 소중히 생각하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갖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관리인만 되라는 얘깁니다. 착을 두지 말고 욕심부리지 말고 분수를 알고 살고, 건너뛰지 못할 걸 건너뛰다가 개천에 빠지지 말고, 구덩이에 빠지지 말고 서서히 침착하게, 산이 태산같이 이렇게 있으면 서서히 돌아가고, 구덩이가 있으면 구덩이를 채우고 물이 흐르듯이 이렇게 침착하게, 어떠한 악조건이 닥친다 하더라도 안으로 굴리면서 그 자기 주인공 한 점에 모든 것을 맡겨 놓고서….

거기서 나온 거니까. 자기로 인해서 나온 거니까, 악조건도. 자기로 인해서 악조건이 나온 것이지 딴 사람으로 인해서 나온 건 아니거든. 잘못했든 잘했든 자기가 있으니까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맡겨 놓고서 한번 안으로 굴려서 바로 다시 놓는 그런 그 침착한 마음, 그리고 남을 원망하지 않고 둘로 보지 않는 그 마음을 갖는다면 스스로서 수레바퀴 돌듯 해, 시간과 공간도 없이.

이것이 참사람의 법입니다. 부처님의 법이라기보다도 참사람의 법을 알아야 부처

☞ 20면으로 계속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